

# 여수단지, 가성소다 250kg 유출

## 원료부두 운송 중 관로 누설 ... 해경이 사고경위·독성여부 조사

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화학공장에서 가성소다액 250kg이 누출됐다.

사고는 7월16일 오후 12시께 수출선에 싣기 위해 공장에서 원료부두 사이 1.5km 길이의 관로를 통해 가성소다액을 운송하던 중 관로에서 누설돼 발생했다.

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누설된 가성소다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천에 차단펜스를 치고 중화제를 뿌리는 등 방제활동을 벌였다.

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와 독성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

가성소다 생산기업 관계자는 “비누 등을 만드는 원료로 쓰는 가성소다는 물 등과 반응하면 녹는 성질이 있다”며 “맹독성 물질은 아니다”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7/16>